

금호피앤비 내년도 벤젠 확보 비상

GS칼텍스 여수산단 공장용지 갈등 공급 중단 장기화

여수산단 적량지구 입찰 문제로 불거진 대기업간 원료 공급 중단 문제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금호피앤비는 “매년 GS칼텍스로부터 공급 받는 벤젠 10만t 원료 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못해 비상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GS칼텍스는 지난 10월초 여수시가 공개매각한 적량지구(7만여평) 매입에 나섰다. 금호피앤비에 석패하자 곧바로 내년도 벤젠 공급 계약을 재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동안 매년 9월말 특별한 통보가 없으면 자동 재연장 됐던 점에 비춰볼 때 GS칼텍스의 벤젠 공급 중단 통보는 여수산단 조성 이래 초유의 일로 받아들여져 석유화학업계에서 적잖은 파장을 몰고 왔다.

금호피앤비는 현재 GS칼텍스측과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 호남석유화학과 여천NCC로부터 추가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호남석유화학과 여천NCC로부터

수급하는 추가물량은 울산이나 서산 쪽으로 공급되는 벤젠을 금호피앤비 쪽으로 끌어오는 것으로, 10만t 기준 100만달러(1t당 1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추가 물량이 차질없이 확보될 경우 금호피앤비 공장 가동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피앤비는 매년 벤젠 총 25만t 가운데 GS칼텍스로부터 10만t(124만원, 1240억 상당) 가량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호남석유화학과 여천NCC, 수입 물량 등으로 충당해 왔다.

GS칼텍스가 내년도 벤젠 공급을 중단할 경우 양사가 수십억을 들여 공동으로 설립한 벤젠공급 관로는 무용지물이 될 상황이다.

양사는 공장 용지를 놓고 야기된 문제가 원료 공급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확산된 데에 따른 갈등의 골이 깊어졌지만 대외적으로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있다.

GS칼텍스는 “가격과 물량을 놓고 협상중이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에는 계약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양문제 때문에 벤젠 공급을 중단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mihang@



국도 2호선 목포시 우회도로 개통... 서울안고속도로에서 남양주시를 거쳐 영암 삼호에 이르는 '국도 2호선 목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15.2km가 23일 개통했다. 이 도로에는 영산강을 가로 지르는 무영대교(사진)를 비롯해 22개의 교량이 포함돼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계단 없는 3.7km...장흥 우드랜드 '말레길' 개통

장흥군은 23일 오후 2시 장흥군 장흥읍 억불산의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억불산 정상까지 등반할 수 있는 총 연장 3736m의 계단 없는 감관길인 '말레길'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말레'는 장흥지역에서 쓰이는 '대청'이라는 뜻의 사투리다.

말레길은 우드랜드 치유의 숲이 가족의 이해와 소통의 장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길은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나무 감관을 이용해 억불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게 돼 있어 건강을 챙기려는 사람들이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우드랜드에는 약 100ha에 걸쳐 40~50년 이상 자생한 아름다운 편백나무가 군락을 이룬 산림휴양 관광지로서 최근 한국관광



23일 정식으로 개통하는 말레길 산책로.

공사가 '신나는 체험여행'을 주제로 선정된 '12월의 가볼만한 곳' 7곳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편백 톨방을 이용한 숲 산책로와 친환경 황토휴집, 일반 숲의 3배 이상의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폭포 등이 어우러져 아토피와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또 지난 3월에 문을 연 편백수급점질방은 현재까지 3만여명이 이용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장흥군의 한 관계자는 "말레길이 새롭게 개통함으로써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가 장흥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 휴양지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청산도 식수난 2014년 해결

상수도 확장공사 설계

'슬로시티' 완도 청산도 식수난이 2014년에 해결된다.

완도군은 청산도 상수도 확장공사를 위한 총 사업비 230억원 가운데 실시설계 용역비 11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실시설계를 거쳐 2013년부터 상수도 확장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청·국화마을 등 노후관로 11.46km 교체 작업과 상수도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현재 21만t의 저수량이 39만 5000t으로 늘어나 갈수록 제한급수가 사라진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광양 백운산·구례 지리산 서울대학술림 서울대 무상양도 전면 보류

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 내 서울대학술림의 서울대 무상양도가 전면 보류됐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광양)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백운산과 지리산 안에 있는 서울대학술림에 대한 무상양도 문제가 보류돼 서울대학술림이

종전처럼 국유림으로 존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지난 2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확인한 결과 정부가 최근 국유재산정책심의위를 열어 이 학술림에 대해 무상양도하는 것을 전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법인이 오는 28일 출범하면서 다른 재산들은 모두 무상양도가 이뤄진 데 반해 백운산과 지리산 학술림은 무상양도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백운산과 지리산에는 각각 1만973ha, 5245ha 크기의 서울대학술림이 있으며 이들 국유재산이 서울대법인에 무상양도될 가능성이 일차 광양, 구례 주민과 지역의회 등이 한목소리로 무상양도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완도~제주 뱃길 빨라진다

전남도는 완도~제주간 항로를 운항할 3000t급 쾌속선인 블루나래호 취항식을 23일 갖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운항은 내년 1월초부터 1일 2차례 취항한다.

블루나래호 취항으로 완도~제주 간 운항시간이 1시간 40분으로 단축돼 기존 '한일 2호' 소요시간 3시간10분보다 1시간 30분이나 단축된다.

지금까지 완도~제주간 항로는 1971년부터 카펠리선 '한일2호'가 운항해 왔다.

전남도는 쾌속선 취항에 맞춰 전용 집안시설인 부잔교를 새로 설치하고 청사 환경정비와 여객 안내용 전자식 전광판을 설치해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에 나섰다. 또 2만t급 집안이 가능한 제3부두 확장공사, 여객선터미널

오늘 쾌속선 취항식 소요시간 90분 단축

신축, 마리아항만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완도항을 거점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공사중인 광주~완도간 국도 4차선 공사가 완료되면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완도항이 물동량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30년 전통 광주대표 맛집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www.geumsoojang.com

2011년을 보내는 의미있는 자리를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송년·신년모임 예약 접수중

-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 3인이상)
 - A코스 38,000원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기본 3인이상) 오찬정식 15,000원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Le 쿠스쿠스 패밀리레스토랑
종이 올리면 따뜻한 음식이 나옵니다.
당신께 드리는 맛의 사치
Merry Christmas

CusCus Family Restaurant

쿠스쿠스: 광주수완점
광주신세계점(12월 OPEN)
체인점 문의: 062)371-0011
체인점 지역: 대전, 전북, 전남, 광주